

월간 충현

교육과 훈련의 달
7·8
1984



8월에 있었던 일

돌이켜 보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무수한 핍박을 당했다.

안하무인으로 교만하고 잔인했던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는 것을 신호로 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본이 세계를 삼키려던 기세와 야망은 점점 밀리고 밟히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의 교만기가 꺾여지면서 한국에 나와서 이 백성을 무참히 핍박하던 일본 관리들이 모여 비밀 회의를 가졌다.

“자, 대동아전쟁은 우리가 일으켰으나 결국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지게 된다는 이 기밀을 한국 백성이 눈치를 채고 3.1운동 때 봉기했던 그 정신으로 다시 일어난다면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상당한 곤욕을 겪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봉기를 일으킬 만한 한국의 애국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무려 20만명이 넘는 한국인 처형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날짜는 8월 17일, 방법은 방공호라는 명목으로 파놓고 독일의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 6백만 명을 죽였던 것처럼 전기 장치나 혹은 가스로 죽이는데 비행기를 띄워 놓고 피난을 시키는 척하여 전부 방공호 속에 몰아 넣어 죽여 버리라는 지령이 한국 전 지역에 극비리에 내려졌다.

8월 17일만 되면 한국의 우국지사, 교회의 지도자가 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월 6일 미국의 B 29에 성냥갑만한 원자탄을 실어 일본으로 띄워 보냈다.

“히로시마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떨어뜨려라.”

하늘에서 반짝반짝 하면서 낙하산에 매달린 장난감만한 무엇이 떨어진다. 히로시마의 일본 사람들이 눈 위에 손을 얹고 “야, 저게 무엇일까?” 구경을 한다.

웬걸, 낙하하던 괴물체는 번쩍 하더니 히로시마 전 도시를 불도가니가 되게 하고 말았다. 그때에 삼시간에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다.

이상하다. 이 20만 명의 숫자를 생각해 보라. 남잡이가 재잡이라더니 한국의 죄없는 애국자, 교회의 지도자, 20여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열하루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자기네 나라 백성 20만 명이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일본은 8월 17일까지 전달 수가 없어 이를 전인 8월 15일에 미국의 미조리 항상에서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 조인을 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하여 죄없는 한국 백성 20만명이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는 해방이 찾아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한민족이 일본 사람들의 손에서 해방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에 8월에 있었던 일이다.

1984/7·8 차례

- | | |
|---|---|
| 2 권두언 / 이성근
8월에 있었던 일 | 22 칼럼 / 김광신
지도자의 삶을 살기가
제언 / 민종기
기독교청년의 시대적 사명 |
| 4 이달의 말씀 / 김창인
경건을 연습합시다 | 24 신앙단상 / 최명실
내 마음에 남는 것
일기장에서 / 송순섭
다녀왔습니다 |
| 6 특집 / 신성종·전호진
•교회성장의 성경적원리
•충현교회 성장의 지향점 | 25 장학회 안내 /
천국일꾼 키웁시다 |
| 12 신앙일고 / 홍치모
초교과 운동에 대하여 | 26 단상 / 조현명
8.15회상
성경연구원 안내 |
| 15 계절학교 결산 / 이종국
천국일꾼을 키우자 | 27 지평보고 / 유희섭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서 |
| 16 기도 / 김희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 28 탐방일지 / 김오용
나환자 정착촌을 다녀와서 |
| 17 찬송가 해설과 감상 / 이관섭
빈 들에 마른 풀같이 | 29 해외선교지 소식 / 세계선교회
우리의 기도 |
| 18 사진으로 보는
주교 여름행사 | 31 교회소식 |
| 20 수양회를 다녀와서 / 이명숙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 33 교우동정 |
| 21 수필 / 장홍석
그리스도의 관심 | 34 9월의 행사
편집후기 |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2권 제6호 통권122호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표지사진해설 / 유·초·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연합예배, 설교자는 김창인 목사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경건을 연습합시다

디모데전서 4 장 1~16절

연습이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된 과정에 따라 실험 실습을 반복하여 숙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습을 법대로 하면 모든 면에서 발전합니다. 몸은 건강하고, 기술은 숙련되고, 정신은 건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동 연습도 해야 하고 음악 연습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에 관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경건을 연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아름다운 경건의 연습부터 해야겠습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옷을 만든다든지,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연습을 하되,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경건을 연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경건을 연습하면 실력자가 되어 성공을 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면 승리자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경건을 연습한 후에 오는 열매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까?

1.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밤 세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루에 10장 이상 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꼭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납니다.

경건의 연습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경건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경건이 유지되고 힘이 생깁니다.

2. 기도하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배워도 기도하여 권능을 받지 못하면 악마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일에 성공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치면서도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원컨대, 총현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기도에 앞장서고, 장로님들이 기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경건이 무너집니다.

3. 헌금을 바치는 연습입니다

헌금 바치는 것도 경건에 속한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50만원을 주셨다면, 그 10분의 1인 5만원을 떼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가가 올라서 50만원 전부를 가지고도 살기가 힘들는데, 5만원을 떼어 놓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 말도 그럴듯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떼어 놓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주일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헌금은 감사헌금에 속한 것이지, 십일조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고쳐야 합니다. 십일조는 그대로 바치고 주일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따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바로 바치는 연습을 하면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면 실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 첫째로, 돈을 써야 할 때에 바로 쓰면 쓰지 아니할 곳에 돈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옳은 데 쓰면, 안 쓸 데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니다.

• 둘째로, 돈을 옳은 데 쓰면 하나님이 마음에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하여 일을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성공자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제일 잘 살고,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후진국가로 굶습니다. 현금을 많이 바쳐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4. 봉사하는 연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시면 사무실에 들어가 서로 말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보다는 뜰에 나가 교인을 만나는 대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중이가 땅에 떨어졌으면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봉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부간에 상대를 이용해서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용한 것 만큼 자기 마음에 고통이 올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에 상대방을 이용하는 가정이 아니고, 서로 힘껏 도우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총현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5. 말하는 연습입니다

성도는 남을 축복하고 좋은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사람이므로, 설교는 쉬운 말을 쓰도록 평생 연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써 놓고도 교인들이 알아 듣도록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쉬운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쉬운 말을 쓰지 않아서 교인들이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설교자는 그 교인을 무시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쉬운 말을 쓰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심방을 가서는 작은 소리로 또박또박 알아 들을 수 있도록만 설교하고, 길고 크게 하면 듣는 사람이 귀가 따갑고 신경질이 나고, 설교자는 야만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말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하는데, 쉬운 말로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총현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쉬운 말을 쓰고,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언제나 축복하는 말만 하도록 연습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면 실력자가 되기 때문에 발전하고, 경건을 연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옳은 것을 연습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나라는 잘 살게 되고, 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가정이 윤택해지고, 천국의 꽃이 피나, 나 자신은 더욱 늙름해 집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자를 돌보아 주기 위하여, 자신을 세속에서 파수하기 위하여 경건을 연습하여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력있는 일꾼으로 승리하는 투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당회장)

교회 성장의 성경적 원리



신 성 종 목사

(중회신학대학교수 본교회 협동목사)

1. 교회성장의 필요성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려 주신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바로 성장하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성장은 생명의 자연적 원리이기도 하다. 무생물은 성장을 하지 않지만 생물체는 모두 성장을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산 생명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회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인들이다. 교회성장이란 바로 교인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의 교제이다. 따라서 잘 훈련된 신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교회성장은 좌우된다. 신자가 많으면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잘된 신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빨리 성장한다. 훈련된 신자수에 정비례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2. 교회성장의 개념

성경에는 교회성장의 개념으로 양적인 면과 질적

인 면이 양면 모두 다 언급되어 있다.

첫째는 사도행전의 개념인데 이것은 숫자의 증가를 말한다. 사도행전 1장15절에서 출발한 120문도가 2장41절에 3,000명으로 2장44절에 5,00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숫자의 증가라 할 때에도 세가지 다른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홀러신학교 맥가브란 교수의 견해로 전입자에 의한 증가, 생물학적 증가, 개심자에 의한 증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입자에 의한 증가는 전도를 통한 교인수의 증가가 아니라 교회부근의 신자가 나오게 되고 이사를 해서 나오게 된 경우이다.

생물학적 증가는 교인들의 자녀가 증가함으로 점차 세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개심자에 의한 증가는 학습교인과 세례교인이 증가함으로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 세가지 증가의 경우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교인증가는 개심자에 의한 교회의 성장일 때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심자에 의한 숫적 증가를 말해 준다.

둘째는 내적성장인데 이것은 오히려 내적성숙이란 용어가 더 타당한 것 같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의 ‘온전하라’는 명령은 교

“성경에서는 교회의 성장을 교인의 숫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 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교인이 많아질 때를 말하고 있다”

회의 영적성숙을 가리키는 말씀이며, 베드로후서 3장18절에서의 말씀은 교회 구성원의 은혜 받을 것과 지식의 성장을 도모하라는 말씀이며, 에베소서 4장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라는 말씀이며, 데살로니가후서 1장3절의 말씀은 믿음의 성장을 권고하는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인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교인 한사람 한사람이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교인이 많아질 때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성장이라 말하고 있다.

3. 교회성장의 일반적 원리

이 원리는 특히 사도행전 2장4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인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다시말하면 기독교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가 교회성장의 하나의 원리가 된다. 교회가 커지면 교인 상호간의 교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더욱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개념은 성도의 교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떡을 떼며’

떡을 떼는 일은 성찬식을 가리키는데 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므로 교회성장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이다.

넷째,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전혀 힘쓴다’라는 말은 원문에 한 단어로 되어있는데 그 뜻은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연합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교회는 성장한다.

다섯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자주 일어나야 한다. 강패가 교회에 돌아오고, 구제불능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표적이 일어날 때 교회는 성장한다.

여섯째,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교회는 반드시 구제사업이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워 구제에 힘썼듯이 교회는 그러해야 한다.

일곱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성장하게 된다. 모이는 교회가 있을 때 흠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여덟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교회가 거울바람처럼 냉랭하면 결코 성장을 하는 법이 없다.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찬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아홉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교회성장의 하나의 원리가 된다.

열번째,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복음의 전수가 용이하다.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는 성장을 못하게 된다.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사회적인 공헌을 할 때 성장하게 된다.

4. 성장하는 교회의 유형

성장하는 교회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카리스마적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를 들면

“집사의 수가 많아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집사의 수가 많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성장은 잘 훈련된 신자의수에 정비례 한다”

방언을 한다든지, 신유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카리스마적 은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성장을 한다. 세계의 10대교회중 5개 교회 이상이 이러한 카리스마적 교회이다.

둘째는 조직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보다는 각 부별로 부별 중심의 활동을 하는 교회이다. 그런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조직적인 것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세째는 교육중심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성경공부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성장시키고 있는데 일대일로 교인을 교육·훈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 중심의 교회는 시간이 좀 늦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성장하는 특색을 지닌다.

네째는 심방중심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규모가 작을 때는 굉장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아주 커질 때는 실시가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세계적인 대교회는 이런 심방위주에서 카운슬링 중심의 교회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 있다.

5. 교회성장의 저해 요소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성장의 저해요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교역자들의 자기개발이 결여되어 있을 때 성장을 못한다.

둘째, 팀웍(Team-Work)이 결여되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현대목회는 팀-웍 교회인데, 이에 따른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그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한 교회내 교육부서 상호간에, 또 부서별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성장한다.

세째, 영성(靈性)이 결여될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

한다.

이 영성문제는 최근 신학교에서도 교육분야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하며 뜨거운 영적 교제를 갖고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그렇게 못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네째, 훈련된 일꾼이 부족할 때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중공의 인해전술 방법이 현대에는 통할 수 없듯이 교회의 성장 역시 훈련 받지 않은 교인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집사 수가 많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집사가 많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집사가 아무리 많아도 훈련 안된 교사는 어떤 때는 문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은 잘 훈련된 신자의 수에 정비례한다.

다섯째, 목표설정이 미비될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목표설정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목표가 너무 커도 안되고 너무 작아도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목표란 큰 목표가 있되 그에 따르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중간목표, 작은 목표가 있어 사다리처럼 한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6. 맺는말

충현교회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교회이다. 말씀 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볼 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충현교회는 이 위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시키거나 폭발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목표들을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차례차례 폭발시켜야 할 것이다.

본고는 1984년 6월 29일 본교회 성장세미나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충현교회 성장의 지향점



전 호 진 박사
(아세아 연합신학원 교수)

I.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으로서 다음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학적인 요인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대체적으로 복음주의 혹은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이다. 자유주의가 성행하는 곳에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둘째, 영적인 요인이다.

영적이라고 함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복음주의 신앙은 정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야말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목회적 요인이다.

이것은 목회활동에 대한 언급으로서 근래에 목사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목사들 처럼 희생정신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하는 목사는 없는 것이다.

서양의 목회자들은 연구는 많이 하는 반면아침 9시에 출근하여 5시까지 사무실을 지킨다. 그리고 설방은 적개하며 기도생활도 그렇게 열심적으로 뜨겁게 하지는 않는다.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목회관리와

평신도들의 열심있는 진도는 교회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네째, 사회적인 요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사회적인 요인으로서 ①사회적 불안과 ②도시화현상을 들 수 있다.

II. 충현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첫째 충현교회는 초창기 성도들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다.

요사이는 사람들이 '순교자적'이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부산에서 통일교회로 시작한 충현교회의 선배 성도들은 순교자적이며 적극적이며 투쟁적 신앙을 가졌던 것이다.

둘째 많은 피난민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들 간에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락교회도 이같은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다음에 충현교회 성장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선교사업, 다양한 국내개척, 총신대학을지원하는데서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등 여러 사업을 들 수 있다. 일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교회는 크지 않는다.

필자는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는 목사외 성도들이 활발하게 밖으로 뻗어 나가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요사이 사람들은 순교자적이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그러나동
일교회로 시작한 충현교회의 선배 성도들은 순교자적이며 적극적
이며 투쟁적 신앙을 가졌었다”

III. 충현교회 성장의 지향점

앞으로 충현교회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성장의 지향점 문제 이전에 충현교회는 지금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첫째 교회이전에 다른 환경의 변화이며 둘째 잠재적인 교인이 강남지역에 많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적당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과 지성인들 가운데 교회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함으로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을 말한다.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자기들에게 맞는 적당한 교회를 발견하면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또한 300개가 넘는 많은 강남의 교회 가운데 청년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 따라서 충현교회는 청년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옛날의 일상각오적인, 또는 청교도적인 신앙이 아니다.

젊은 세대들은 적극적, 투쟁적 신앙은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다양성을 예견하여야 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충현교회는 중앙지대에서 나와서 행정구역과 상가로 변모하는 도시를 떠나 중류층 이상의 주택가가 있는 외곽지대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교인들도 사회적으로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몇년 전에 모교회에서 사회환경 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강남지역은 무려 80% 이상이 대학출신이며 고소득자들이라고 한다. 그러하여 교회도 자연적으로 사회계층이 상승하게 되며 옛날의 가난하였던 시절의 교회와는 신앙태도도 자연히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포용하느냐 하는 사회적 환경의 여건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이제 충현교회는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돌입하였다. 위치로 보아서도 큰 교회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며 물량적인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말이 들리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보다 큰 교회가 생긴다면 기뻐하고 축복해야 할 터인데 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은 대단히 씁쓸하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쟁의식이 신앙형태의 변질을 가져온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세째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충현교회는 31년째 되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이전하였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세대교체가 되며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전환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충현교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네째, 충현교회는 제2세대로 접어들면서 지도자가 바뀌게 되는 불가피한 현실에 접하게 된다.

통합측이나 고신이나 오늘날 대교회들이 지도자가 교체되면서 술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임자의 목회를 그대로 계승하지 못해서 갈등 속에서 분리된 모습도 보게 된다.

충현교회는 한국의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어느 종교든지 제1세대가 시작할 때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인물로 시작한다. 그와같은 지도자는 헌신적이고 투쟁적이며 영웅적이다. 그리하여 신앙의 이념문제를 가지고 생과 사의 고비를 넘기고 희생하였으며 비전(Vision)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제2세대의 지도자는 대체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카리스마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카리스마적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 2세 지도자에게서는 영웅적인 신앙경력을 기대할 수도 없다.

더우기 2세 지도자는 이미 세운 대 기구를 어떻게 운영(Manage)하느냐?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고 이념을 계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보수주의 교회들은 2세를 키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존스 목사는 유명한 설교가요 목회자요 학자요 행정가요 복음주의 운동가였다. 그런데 그 후계자는 많은 차이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여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충현교회의 미래성장의 열

“건전한 신앙 이것은 신앙과 신학의 동질성에 대한 문제이다.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는 우리는 성경전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최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전환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싶다. 다음의 몇 가지들이 충현교회 성장의 지향점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드린다.

첫째 성장의 목표와 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어떤 큰 교회들은 50만이니 80만이니 하는 숫자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군(?)하고 있는데 좋으나 섭섭함을 느낀다. 미국에서는 별로 그와 같은 교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장도 사회에서의 수준과 맞추어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사회 모든 기구와 맞지않는 어떤 숫자적 기구로 운영할 때 그것에 대한 거부반응을 가지게 되고 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며 갈등을 지니게 된다.

선교학에서도 교회는 어디까지나 사회 환경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교회가 거대한 조직체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사회에서 질투를 하여 그것을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너무 지나친 과욕은 내지 않고 참교회 성장의 기준인 영적인 성장을 갖춰야 한다.

둘째 성도들의 윤리적인 성장으로 윤리의식이 강력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커지고 1세대가 2세대로 일부 교체되며 교회가 첫사랑과 첫신앙, 첫이념이 퇴색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이다. 조직과 기구 건물이 커지게 될 때 재산권과 정치적 주도권 탈취에 대한 싸움이 진전한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하나의 질병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조직과 기구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이해관계를 직결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후진국에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업을 개인주의 이권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무서운 마귀인 것이다.

셋째, 대 교회일수록 유기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 즉 성도와 성도간의 분리되지 않은 연합을 이루어 지체의를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내 마음대로 안된다고 반항하고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며 사회적으로 표출되고야 만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는 제 2

세대를 맞이하여 지도자나 핵심신자들이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충현교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건전한 신앙이다. 이것은 신앙과 신학의 동질성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오늘날 일부 대 교회의 신앙이나 신학에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는 우리는 성경전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올바른 대 교회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 강남 지구에 있는 많은 평신도들은 건전한 교회가 서기를 염원하는데 이에 따라 부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교제와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의 참여 기회를 해소시키면서 대교회를 키워야 한다.

대교회의 예배분위기는 뜨겁고 우렁찬 찬양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성도로써 긍지를 가지는 축제 분위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소그룹이나 지역을 통하여 전체를 흡수하여야 한다. 구역제도를 통하여 신자들의 참여의식을 높고 계층별 그룹활동을 통하여 신앙훈련, 교제 선교, 전도, 교육사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충현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와 선교회가 따로 분열되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나 하면 교회(church)와 교회 내의 별개로 활동하는 단체(para church)간의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교회 성장의 중대한 관점이 될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해외선교 교육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성장할 때 충현교회는 앞으로 더 과감하게 선교하기 위하여 보수적 신앙과 신학을 가지면서도 사회문제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참여하여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84년 6월 28일부터 30일에 본 교회에서 있었던 제 4회 교회성장 세미나에서의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초교파운동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홍 치 모

(총신대 교수)

I

최근 각 교파에서 발간하는 신문과 기타 기독교계에서 간행하고 있는 여러 잡지를 볼 것 같으면 각 지교회에서 혹은 단체에서 개최하는 부흥회를 알리는 광고를 비롯하여 여러 지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합동으로 개최하는 집회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때로는 교파를 초월하여 소위 에큐메니칼적인 성격을 띤 모임도 과거 10년전 보다 훨씬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래 에큐메니칼운동은 좋은 운동이다. 교회가 한 하나님과 한 성령, 그리고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고 전제할 때,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또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교회연합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과거 한국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 미국에서 한국에 온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 북장로교를 비롯하여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교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가지로 같은 교리와 신앙고백 밑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의 연합체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육에 힘을 기울였던 사실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단지 편의상 그들은 지역적으로 선교구역을 설정하여 각기 선교에 힘썼다.

여기서 우리들이 유의하여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지만 그들의 『신앙과 교리』가 근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같았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연합사업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로교회를 세울 때도 한 장로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 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온 감리교선교사들과도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별 어려움 없이 부드럽게 해결하곤 하였다. 이것이 장로교·감리교 선교사들의 협의기구였다.

과거 이들 양자간에 대화와 협동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한국에 온 감리교 선교사들도 그들의 신앙이 극히 보수적이었고 그들의 교리 또한 정통적인 웨슬레의 신앙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기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사이 좋게 공생, 공존을 할 수 있었고, 협력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세가 커져 감에 따라 각기 교파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업과 운동을 전개시켰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는 서로가 강단을 교환하는 것은 극히 신중했으며 더구나 장로교회는 더욱 엄격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도 서로의 신앙과 교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가 힘을 모아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가 만주침략을 계기로 한국을 교량으로 삼게 되면서 한국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자 그 첫째 대상을 바로 교회로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은 좌절감을 맛보면서도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

기독교는 여러가지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리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신앙생활

의 균형이 깨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일제의 탄압에 의한 절망적인 생활 가운데 허무주의, 비판주의, 염세주의 사상이 교회안에 만연되어 개인주의적 타협주의 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 때 한 몫을 단단히 본 사람이 감리교 출신의 이용도 목사와 성결교 출신의 이성봉 목사였다.

1930년에서 1939년까지 한국의 장·감·성 세 교회에서는 교단의 배경과 교리를 가리지 않고 이들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교리적 감각을 흐리게하는 시대적 상황이 빚어낸 초교파적 부흥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1938년 신사참배가 가결되고 1942년 조선의 모든 교단들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그것이 다시 일본기독교단인 산하에 들어가게 되자 그때까지 지켜내려 오고 있던 각 교파 나름대로의 신앙과 교리는 살아져버렸고 일본 제국의 침략전쟁을 돕는 어용교회로서 초교파적 에큐메니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일제(日帝)강압에 의한 교회연합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초교파적 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II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된 후 교회밖의 교파를 초월한 교회연합운동으로는 YMCA와 YWCA운동이 있었음을 말할 수 있다.

이 두 운동은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문화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도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변질되어 어쩔 수 없이 일제의 강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모든 교회운동은 중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잠시동안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다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채 마비상태에 빠져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은 형극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위에 살고 있는 겨레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애타게 그리던 해방이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한평어리로 뭉쳐서 기인한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국에 있어서도 1945년 아무런 지도자도 내 세우지 않으신채 직접적으로 역사를 섭리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이 저지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를 남북으로 분단시킨채 해방을 주셨다. 북쪽은 붉은 공산세력에 의

해서 점령되자 교회는 1950년 6.25를 계기로 지상에 서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해방이후 1950년까지 남·북을 막론하고 과거에 저지른 죄악(신사참배를 비롯한 갖가지 죄)에 대해서 어린이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비는 것과 같이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회개다운 회개도 하지 못한채 노회가 총회가 열릴때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계속하였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 나타났던 현상은 교회의 교권 싸움이었다. 교회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되자 교회의 권위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교회가 분열하게 된 요인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 ①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문제(재건과는 처음부터 이탈해 나갔음)
- ② 신학사상 문제
- ③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의견차이(W. C. C. 문제를 말함)
- ④ 지역적 감정문제와 교권쟁탈을 위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야욕.

대개 이상 네가지가 교파 분열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요인이 작용할 때마다 일반 평신도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평신도들은 대체로 인맥과 지맥에 따라 움직이는 지교회의 목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통례였다. 이것은 한국의 평신도들의 신앙의 자유성과 신학사상의 의식화가 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 교회안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가? 그것을 지적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① 기성교회를 부정하는 카리스마적 운동(이단 운동)
- ② 펜테코스트적 부흥운동(방언운동, 신유의 은사 운동)
- ③ 기성 교파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별리는 선교활동 운동(복음적인 초교파 운동이나 교리적 배경이 애매함)
- ④ 교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연합운동을 앞세

III

한편 비록 신학사상이나 교리에 깊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여온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은 교회분열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염증마저 느끼게 되었다.

반면에 교회의 통일과 연합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과거 영화롭던 한국교회를 회상하면서 일사불란했던 시절에 대해서 향수마저 느끼는 정도였다.

이 시점에 고개를 들고 나오게된 운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위 초교파적 복음집회라는 탈을 쓰고 나타난 신관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을 볼 것 같으면 신앙사상이 선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모호한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그들이 마련한 모임이나 운동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교파에서 지도급 인사로 알려진 인물들을 단막극의 배역처럼 이용하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 운동에 추대한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신문광고도 한다.

이때 지각없는 지도자들은 그 운동의 성격과 배경을 세밀하게, 미처 살펴 보기도 전에 승락하는 경우가 없지않다.

대체로 복음을 빙자하고 일으키는 초교파적 연합 집회의 성격을 보면 신비주의적이며 광신적인 경우가 많다. 이성을 잃고 중심을 잃은 채 흥분 속에 날뛰는 것이 부흥운동이란 말인가? 그런 광경을 루터(Luther)나 칼빈(Calvin)이 보았다고 상상해보자. 과연 아연실색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합동측 교단이 한국교회의 장자로 자처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이비하고 모호한 초교파운동에 시너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된다.

미국의 정통 장로교회의 목사들과 미국 기독교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와같은 애매 모호한 초교파적 복음운동에 함부로 뛰어들거나 가담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세를 신중히 하고 있다.

초교파운동의 가장 위험한 점은 신앙과 교리의 혼합주의화에 있는 것이다. 특히 W. C. C.는 천주교, 불교, 유교, 회교등과도 연합을 모색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교파들이 하는 초교파 운동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오만의 죄를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고 무분별하게 상대가 우리를 초청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간다는 식의 처세도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날 우리 교단은 말로는 칼빈주의 교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비 칼빈주의적, 비 장로교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있다. 오순절파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 교리적 무관심 등이 판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표면상 약간의 복음적인 것이 채색되어 있지만 하면 덮어놓고 연합하여 무분별하게 행동한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적 신앙과 전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합동교단은 우리들만으로 교단적 차원에서 부흥회, 기도회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고생각한다. 그리고 국제적 집회까지도 뜻과 힘만 모은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문제는 교단이 나아갈 방향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 교파가 주동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과 교리적 배경이 모호한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키는 초교파적 연합운동에 들러리격으로만 참가하여 그들이 하는 일에 빚만 내줄 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만 되는가?

심지어 통일교회의 인사들이 「초교파」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주의하자. 말세에는 양의 탈을 쓴 사이비 지도자들이 눈부시게 활동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초교파적 복음운동이라는 탈을 쓰고 교회안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성직자나 평신도 누구를 막론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

— P28에서 —

예배가 끝나고 각부서로 흩어져 더운 날씨에 많은 땀을 흘리면서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시며 함께 놀아 주기도 하시는 선생님들.

지난 겨울에 성경학교를 끝내고 평가회를 했을 때 참 평가회를 할 수가 없었다. 평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장소와 직결되니, 선생님들은 "장소가 해결되면 되겠지만..."이라고 평가의 서두를 꺼내면서 말했다. 말해도 시정될 수 없는 문제들인 것을 서로가알면서도 말해야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평가회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번 평가회는 새성전으로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비교적 좋은 평가들을 내었으며, 또한 참된 평가도 나올 수 있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참된 평가를 기초하여 좀더 개발하여 발전된 계절학교의 훈련을 통해 천국일꾼들이 양성되기를 바랄뿐이다.

천국 일꾼을 키우자!

교육위원회 간사

이 종국 집사

유난히 뜨거운 열기로 땀도 많이 흘린 한 여름이었다. 지난 7월 9일 (월) 대학부 제15회 하기수양회를 선두로 막을 올린 1984년도 여름계절학교가 8월 15일 (수) 제1회 중년부 하기 수양회를 끝으로, 주일학교 16개부중 새신자부, 세례부, 새가정부를 제외한 13개부가 새성전과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하였다.

초·중·고교가 한 주간씩 일찍 여름방학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년·초등·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도 예정보다 한주간 앞당겨 실시하였다.

새성전으로 이전 후의 처음 맞는 여름계절학교 행사이었으므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유난히도 긴 불별 속에서 땀 흘리신 534명의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 주심과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증거하여 주신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일꾼을 키우는데 전념하는 충현의 교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름계절학교의 실시 기간은 연44일이었고 모두 4269명이 참석 하였으며 예산은 13,925,000 원으로 작년보다 증가된 (+544)만원에 비하여 내림예산 집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3년에는 3,725명참석에 11,911,500원의 예산으로 1인당 3,198 원 이

었고 1984년은 13,925,000원의 예산으로 4,269명이 사용하여 1인당 3,028원 (대의 강사로 1,000,000 포함)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참석인원은 4,269 명으로 14.60%가 증가했으며 행사 참여율은 93.8% (83년 89.5%)였습니다.

각부의 시간 계획표에 의하면 13개부의 총 시간은 328.6시간이었고 1개부의 평균시간은 25.3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과 예산들을 새 생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삶에 변화를 주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단정할 자신은 없으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행사 또는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는 극히 행정적이고 외형적이며 미시적이며 우리에게 발을 기약하는 평가방법, 평가기준등이 아직은 명확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비교적 타 교회에 비하여 세분된 계절학교 실시결과 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도 주교가 통일되지 않고 기록도 책임있는 교사가 상세히 시야를 넓혀 기록해야 함에도 보조교사에게 일임하는 사례가 있어 교사에 대한 반복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더욱 강조되기도 합니다.

계절학교도 주일의 분반공부와 마찬가지로 주일학교가 목적하는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같겠지만 계절학교 교육내용의 구성이나 프로그램 및 진행 방법 등은 확실히 주일의 그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 다른 점들이 바로 계절학교의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계절학교를 계획함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입장과 교회 전반적인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가르치려는 교사의 강한 의욕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다양했으나 그 진행방법과 사후 정리 및 평가 내용에 있어서는 개선됨이 없이 종전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행사 계획후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실시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준비만을 끝내고 실시함으로써 계획시의 의도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계획 또는 계획의 변경실사등으로 계절학교 목적에 부

응하는 행사가 되지 못하고 다수의 인원이 참석한 것에 의의를 갖는 인상도 풍겼습니다.

금년 여름의 특징 중에는 유년·초등·소년부가연합하여 1부로 예배를 본당 101호에서 드리고 2부 순서를 부별로 장소를 달리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1부 예배 강사로는 김창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심으로 어린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짐이 좋았으며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음도 심히 좋았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어린이가 참석하여 준비한 간식이 모자라는 즐거운 비명도 들렸습니다. 구성전의 좁은 뜰에서 답답했던 것이 새성전의 넓은 곳곳에서 이글거리는 태양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이와 교사가 한데 어울려 활기차게 뛰노는 모습이 흐뭇했고, 프로그램도 단순한 다양화가 아니라 인형극, 성화(영화)를 상영하여 부교재(시청각 교재)를 통한 말씀 전달에 큰 성과를 본 해이기도 합니다. 차세에 이제는 우리도 말씀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교재 및 교구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바람직한 계획은 소수가 하더라도 준비는 각분야 별로 참가하는 전 교사가 하도록하고 전체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내용과 행사의 취지 및 내용등을 주지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결코 소수의 교사가 모든 일을 전담함으로 그 전담교사의 유고시에는 차질을 초래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 됩니다.

주교각부의 지도교역자와 부장단에서는 교회의 결정을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납득시켜 합심하여 협력하는 일면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평소 주일공부나 행사를 통한 생활훈련과는 다른 집단생활을 통한 말씀의 실천을 위한 생활훈련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기대감은 그리 충족되지 않은 듯하며 계절학교행사의 바람직한 교과내용 구성과 운영방법들이 긍정적이고도 발전적으로 계속 이해되고 추진될 때 더욱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새성전으로 이전하여 물려드는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각부의 주일공부 교육방법 교재 프로그램제작과 그 진행방법에 대한 면밀하고도 세심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도 교회적인 것이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그 어느 때 보다도 천국일꾼을 키우는데 있어서 지체가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건강하고 충실한 지체를 고루 갖춘 전체 즉 나무를 보고 미루어 숲을 보며 숲을보고 숲을 보아 나무를 헤아리는 안목으로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와 성도와 교사가 합심하여 깊은 관심과 열심을 낼 때 충현의 천국일꾼은 더욱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뜻에 합당케 될 것으로 믿습니다.

◇ 기도 ◇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년부 2-19반

김희현



주님의 은혜 속에 여름 성경 학교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 드리며 여름 성경학교 때 지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화는 너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무찌른 것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믿음이 저절로 솟아나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시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되겠어요.

“빈 들에 마른 풀 같이”

- 172장 -

이 관 섭

(제 2부 성가대 지휘자)

L. A 올림픽에서 금메달 소식은 온 국민을 감격시키고도 남았다.

우리는 서러움 속에 살아온 약소민족 이기에 세계의 강대국과 겨뤄 당당히 금메달을 땀을 때 대견하고 눈물겨운 것이다. 다른 나라는 수많은 금메달을 따는데 한 두개 따 것이 무어 그리 야단스러우냐고 비웃지말자. 우리는 과거 얼마나 멸시당하고 짓밟혔던가? 그러므로 하나의 당당한 금메달이 우리에게겐 정말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금메달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인한 신앙의 금메달인 것이다.

한국교회는 축복의 단비 속에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은사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가 이뤄놓은 이 놀라운 금메달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금메달의 축하행사가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거행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신앙의 금메달을 따기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는 찬송이 있으니 그것을 “빈 들에 마른 풀 같이”인 것이다.

♪ 빈들에마른풀같이 시들은나의영혼
주님의허락한성령 간절히기다리네
가물어메마른땅에 단비를내리시듯
성령의단비를부어 새생명주옵소서

이 찬송은 미국의 다니엘 웹스터 히틀(D. W. Whittle, 1840~1901)이라는 부흥사에 의하여 작시되었고 제임스 맥그라나한(J. McCranahan, 1883)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찬송가의 비중은 곡조보다 가사에 더욱

의미가 있으므로 히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19세기말 미국의 대 부흥사 무디와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부흥사였는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도여행도 수차 감행하였던 매우 진실한 분이였다.

히틀은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여 찬송시로 남기는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축복의 은사를 저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였다.

이 “빈 들에 마른 풀 같이”는 에스겔 34장 26절을 근거로 하여 작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구절임을 알 수 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의 모든 식물들이 갈급하게 단비를 기다리는듯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주님의 은혜도 큰 것임을 말해준다. 이 렇게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 후 분 위기가 조성 되었을때 히틀이 설교를 함으로 인하여 교인들은 많은 은혜 속에 감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게 된 비결중의 하나가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의 신앙심이라 생각한다. 차분하고 정중한 주일예배 찬송이 절실히 필요함과 아울러 “빈 들에 마른 풀같이”와 같은 부흥적인 8분의 6박자의 찬송이 저녁예배시에 많이 불리워 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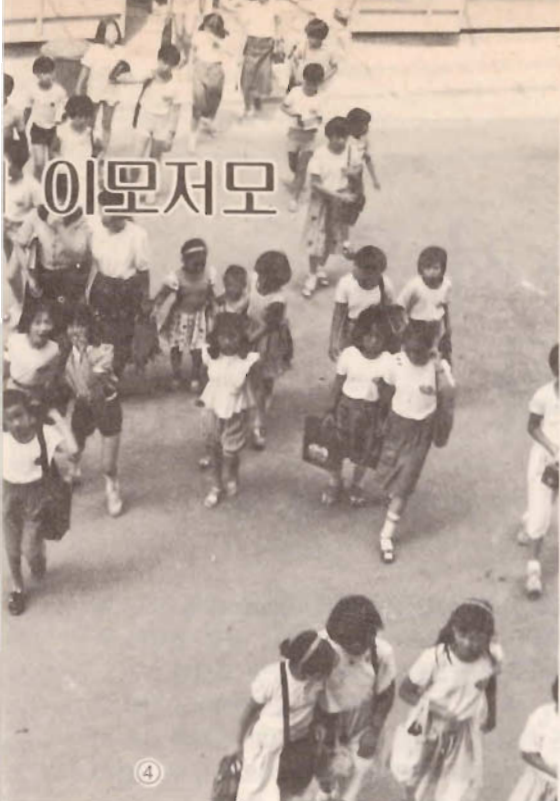
선교 100주년의 행사가 거행되는 8월에 이 찬송가를 더욱 많이 부르므로 교회부흥의 열기가 계속 더 가해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① 전도 출발전 준비기도 (유치부)
 ② 기쁨의 환호 「할렐루야!」 (유·초·소년부)
 ③ 서로 서로 사랑하라 (유·초·소년부)



이모저모



④



⑦



⑤

- ④ 모여라 여름성경학교로
- ⑤ 숨소리도 고요하게 말씀을 듣는 유·초·소년부 연합예배
(원내는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 ⑥ 달고 오묘한 말씀을 가지고 (중등부)
- ⑦ 너무 너무 즐거워 (유치부)
- ⑧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찬송을 (대학부)
- ⑨⑩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한 시간 (대학부)
- ⑪ 가사를 작사하여 찬송을 (고등부)
- ⑫ 은혜의 열기로 뜨거워진 몸도 식힐겸해 서 물장난도 (고등부)



⑧



⑨



⑩



⑪



⑫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명 숙

(대학부)

이번 4박 5일간의 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 너무도 미비한 것들을 모두 모아 주님이 열두 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채우셨다.

여느 때 보다 가장 적은 회원의 참석, 혹시 무덤거나 장마가 지지 않을까? 등등의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셨다.

이번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주제였는데 특별히 「은사」 자체를 다룬 것은 처음이고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생소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었다. 그룹성경공부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은사발견과 은사사용 방법 등을 다루었다. 또 다른 시간들에는 「성령의 연속성」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도 다루었다.

지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어렵고 벅찼지만 아침 강의를 시간을 통해 은사하면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성령」에 대해 강사 목사님께서 만드셨다는 소책자 「성령론」을 통해 통괄적인 강의와 함께 다각적인 의문을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성령에 의한 부흥운동들을 살펴 보면서 그러한 귀한 운동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날 밤에 그러한 운동(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고백과 용서의 시간」이었다. 창 밖에는 한낮부터 내려 굶는 굵은 빗줄기가 주위를 잠재우고 우리가 모인 기도원 본당에서는 찬양의 시간을 통해 모든 이의 마음을 열어 주셨고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 계속해서 기도회가 이어졌고 성령께서 모인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시고 어느 한 자매를 통해서 서로를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이셨다. 그날밤 두시가 넘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깨어져 가고 있었다.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찾아가서 고백하

는 모습들!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학부 회원간의 많은 관계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았다. 그의 인격과 깊은 지식 그리고 솔직한 고백들을 통한 가르침을 존경한다. 수양회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기록한 노트를 읽어 보기도 하고 녹음테이프를 통해서 다시 듣고 있다. 이번 수양회를 기점으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형제자매들이 은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렵듯이나마 자신의 은사들을 발견하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은사를 알게 되고 자신의 것을 발견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은사가 주님이 원하시는대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님되심을 인정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없다면 이러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발견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단순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더 고도화된 기능조직이 되는 것 이외에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본다.

참으로 교회의 각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고 그런 자들의 모임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사용되는 것 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오직 정적인데서 머물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아는 것과 이웃이 귀한 줄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 각자의 은사들이 계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관심



장 홍 석

주일아침 미국 어느교회앞 계단에서 한 흑인이 울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흑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주일아침인데 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여기서 울고있느냐?” 흑인이 대답했다.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백인)들이 저는 피부가 검다고 예배드리는데 못 들어오게해서 슬퍼서 울고 있어요”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아라 나도 이 예배당안에 한번도 들어 가본 적이 없단다.” 어느 책에선가 이글을 읽고 상당히 떨렸다. 나 자신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안에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강한 마음의 도전을 받았고 어렴풋이 내려지는 결론은 나 또한 이와같은 예배당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 많다. 솔로몬의 온갖 영화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보다 못하다고 했으니 꽃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찬란한 광채의 보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한 내 재산, 내 명예 내 부모형제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어느 수필가의 팔자에 열간은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했으니 지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며,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천하에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 아닌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해결점 찾기가 곤란할 때 우리들은 여러가지 방향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다. 인간적으로 아주 난처한 경우를 당했을때 주님이시라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생각해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얘기한 미국 어느 교회의 경우 흑인을 교회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면 결코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흑인을 예배당으로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도 아름답고 또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인간과 그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이다. 한 생명이 라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되기를 바라며 나에게 관심을 나타내는데 나의 관심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을 때가 대다수임을 인정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남을 회생시켜서라도 나의 성공과 우리 가정의 운책을 추구 함으로써 이웃이 가슴 아파할때 주님께서도 가슴 아팠을 것이다.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크게 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하며 우쭐할때 주님은 전혀 관심조차도 나타내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삼 나 자신을 돌이켜 본다.

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많은 교회와 각 저회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정성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정녕 무엇인가? 내자신의 거듭남은 물론 소의된 이웃, 고통받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우리들은 우리를 자신에게 만큼 참 사랑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전 신문에서 보니 아프리카에서는 굶주림으로 슬한 사람들의 죽어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한끼에 2~3만원씩 하는 개 전용식당이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먼 이웃나라만의 얘기인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 여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나와 우리의 관심이 되고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한다. 우리들이 갖는 관심보다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떠한 형태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도자의 삶을 살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김 광 신 장로

일평생 소시민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단언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영역에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고 역사는 헌신적인 지도자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지도자들 중에는 그 책임을 거부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집단도 망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적인 지도자의 삶을 감당할 경우를 통해 지도자의 삶이 결코 힘든 것만을 아님을 알게된다.

모세는 부름을 받기 전에 광야 깊숙한 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남의 집 양치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그를 충분히 울적하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하여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의 짐을 보여 주시고 모세가 그 일의 책임자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신다. 자격의 유무나 감당할 능력의 유무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바이다. 범사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보냈던 수년간의 기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준비기간이 되었다.

그가 군대를 지휘한 경험도 없었고 나라를 통치해 본 경험도 없었다. 더구나 한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어떤 수련을 받은 경험도 없었고 행정이나 경영에 대해 배운 적이 없으나 그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계속적인 교제였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요청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례만큼 그 역할이 주어져야하고 수고한 댓가만큼 열매를 따야한다.

위대한 지도자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에게도 있어야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청년의 시대적 사명

민 중 기
(정년부 회원)

성서는 기독교인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규정짓는다. 이 말이 진리라면 이 세상은 기독교인의 고향도 아니요 목적지가 될 수도 없다. 그저 잠시 머무르는 곳이 될 뿐이다.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편안하거나 유복할 수 만은 없는 것은 극의 목표가 여행지에서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여행지의 생활양식과 관습이 하늘나라의 생활양식과 현격하게 다르며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나그네의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시로 갈등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그네란 요컨대 여행지의 관습대로 세상에 집착하므로 무겁게 짊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속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자유하는 자이며 거처기 쉬운 것을 벗어 버리는 자이다.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신자가 나그네이기를 포기하는데 있을 것이다. 나그네됨을 포기할 때 이세상에 정이들고 내적 양심이아어 떠하든 외적 고난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더 이상 다른 도성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자신의 본향으로 착각하기 까지 한다. 이때 여행지의 암흑은 더욱 깊어가고 나그네는 영적인 수면상태에 빠지고 세상의 시대사조는 나그네의 혼을 유린하며 결국 여행지의 종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또다른 양상으로 나그네이기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는 나그네가 산속에 숨어들어 은거하게 되는 경우이다. 은거하는 나그네는 더 이상 여행지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도 없고 그들의 사조에 물드는 불상사도 없이 고매한 외형을 가진 생명없는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투쟁도 갈등도 없고 오로지 이기적인 자기세계만이 있으며 소

금에 되어 녹아지거나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낼 필요도 없다. 이들은 초막 셋을 짓고 산위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때 은거자들의 공허한 외침은 들어주는 사람없는 반향만을 계속하다가 결국 사라져가고, 산속에 세운 초막은 오히려 여행지의 사람들에게 의해 훼파되어간다.

소아시아의 일곱교회는 무엇 때문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을까? 영성(?)으로 충만해 있던 수 많은 러시아의 교회는 왜 공산주의자의 망치와 낫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그들이 나그네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기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기 보다는 여행지의 재보다 안락 속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주님은 촛대를 옮기셨고 세상은 그들을 능욕했다. 초창기의 역동적 신앙으로부터 후퇴하여 세속의 문화를 거스르는 온전한 기독교인의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 때, 즉 세상과 혼합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은거하게 될때, 우리의 한국교회가 소아시아와 교회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시대를 바라보며 고뇌를 토로했던 하마국의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부패한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드높이 외치던 아모스의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젊음은 가능성이고 순수성이다. 청년에게는 나그네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기에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으며 아직 여행지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다. 또 한편 청년은 때론지 아닌지 심령으로 여행지의 악과 혐오스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나 그와 동시에 때론지나 부서지기 쉬운 허약성도 가지고 있다. 젊음의 특권이 이같은 가능성과 순수성일진대 우리는 어떻게 이 특권을 살려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젊은 나그네는 자기확인의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일이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천직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욕심에 이끌려 거룩한 소명과 속된 소명을 잘못 나누는 근본주의적 발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소명을 발견한 젊은 나그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시대의 인식이다. 시대의 인식을 위하여 우리는 시대의 정신적 조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하며 개인적인 차원 만이 아닌 집단적인 차원, 일차원이 아닌 전차원에서 교회만이 아닌 가정과 직장에서 스며드는 악을 예리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Spirituality)이라는 것은 말씀의 진리에 입각하여 인간의 전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영혼과 육체의 지나친 구분, 지적·의지적 노력을 영성의 추구와는 항구적인 모순관계로 이해하는 것,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만을 신령하게 여기는 경향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균형잡힌 기독교, 모든 지체를 소유한 온전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 세기의 한국기독교가 많은 신앙인을 길러 냈지만 이 세상의 사조를 거스르는 총체적 싸움을 벌일 기독교적 지성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나그네이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부터 시작된 것 이기를 젊은 청년 나그네는 극심하게 세속화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진리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는 젊은 청년나그네는 이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으리라 “하나의 소원이 나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게하여 주소서. 하나의 소원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가시처럼 자극하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부과된 그 거룩한 임무로부터 도파하게 된다면 차라리 생명의 숨길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국가에서 재건되게 하시고, 성서와 자연이 증거하는 주님의 계명을 국민의 양심 속에 되새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이 넘치게 하시고 사회에는 공법이 물 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기독교 청년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헌신되기 위하여 할 일 많은 세대에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는가?

우리의 사명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여보자. 청년들이여!

내 마음에 남는 것

최 명 실

(중등부 교사)

나의 이 벅찬 감동을 말을 안하고 있으려니까 도저히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참다못해 펜을 들었다. 얼마전 나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어야 했다. 특별히 어떤 병이 걸리거나 한 것은 아닌 데 몸에 기운이 없고 무얼 좀 하려고 하면 이유없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쭈서서도 저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처음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의지력과 인내력을 발동하여 억지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1주일 정도 밖에 지속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지력도 인내력도 더 이상 동원할 수 없음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은 자리펴고 누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누워 있으면 정신도 말짱하고 몸도 쭈지지 않았으나 다시 일어나면 몸이 아파서 도로 누워야 했다. 할 수 없이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이때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푹 쉬기로 했다.

여유있는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지나간 몇 개월동안의 나의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중에 내가 가장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데에 미치게 되었다. 이때까지 나는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에 가장 크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실상 나는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경향이 없는 중에도 꼬박꼬박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며, 성경도 읽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활의 스커기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인간이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도 물론 귀중한 일이며 반드시 신앙에 배치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된 것이 아닌 인간 자신의 원함에 의해 출발되었다면, 일단 꿈을 향한 자신의 노력을 중단하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학자가 되

길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학설을 내놓고 실험으로 그것을 증명 시켰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위대한 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이 항상 최소한의 상태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과 크리스찬이 자기의 영혼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 풍성히 모시지 못한다면 천하를 얻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상념들이 일어났다.

그동안 내가 원했던 것을, 내 손에 내 가슴에 부들켜 안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가만히 바라 보았다. 나에게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계심을 느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나의 어깨를 내리 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린 듯 몸과 마음이 기뻐졌다.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린 그 순간, 나는 쓸쓸하고 공허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기쁨에 벅찼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 그 분은 나의 삶속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아서 넘치게 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자성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 일기장에서 ◇

다녀왔습니다

송 순 섭

(직장전도교육부 회원)

녹음 길은 초목 위로 뜨거운 태양 빛이 내리쬐는 여름!

어려움과 열매인 시간 속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성경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8월 2일~4일까지 2박3일의 수양회를 위해 교회 버스에 몸을 싣고 충현기도로원으로 산에 나무·풀·꽃 심지어는 기도원 마당에 깔려있는 자갈 하나 까지도 우리를 반겨주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가운데 9개반으로 편성되었다.

방을 배정 받고, 잠시 쉼 후, 부흥회에 참석하였다. 강사이신 이원길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 버려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등을 말씀하여 주셨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찢었고 우리의 눈은 성경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기도원 동산 위에 떠 있는 별들 만큼이나 반짝였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하기전 정전이 되고, 비 바람이 몰아쳐 두려움으로 떨던 심령도, 자신의 교만과 허위와 거짓 하나 하나 주 앞에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다.

둘째날, 새벽예배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대해 배우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며, 체력 단련을 위해 조깅과 체조도 하고 세면과 식사 후 김양래 전도사님의 오전 구역강의와 장혜순 전도사님의 오후 신약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강의가 끝난 후, 최신행 총현 미니 올림픽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와 갈렙 두 팀으로 나누어, 배구, 발야구, 여자 축구등을 더운 열기 속에서도 서로가 더욱 더 잘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뛰고, 응원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육대회에 흘린 땀을 식히기 위해 주님이 주신 자연 풀장(넷가)에 가서 땀을 씻고 저녁식사 후, 저녁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설교 후 촛불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양팔을 벌리고 이시야 53장 5~10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뜨겁게 체험하였다.

초가 빛을 내기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하듯 우리도 젊음·건강·지식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촛불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기도시간이 주어졌다. 산에서, 벤취에서, 본당에서... 회개와 결심,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

마지막 날 폐회예배를 마친 후, 돌아 올 때 아쉬운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싣고 이천에 있는 온천장으로 향했다.

원
고
모
집

월간총현은 독자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신앙월간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체험이 담긴 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이외도 제언이나 독후감등의 원고도 받습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때는 연락처 및 소속과 나이를 기록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총현교회 월간총현 담당자앞 (선교관 201호실)

○내용 및 매수: 자유롭게 8매 전후

천국일꾼 키웁시다

본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는 장학사업에 협조합시다" "천국일꾼 키우는 장학사업에 한 몫 합시다"라는 표어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우리교회의 5대목표중 하나인 "천국일꾼 양성"을 우리의 정성과 헌금으로 이루기 위하여 당장 장학회에서는 지난 3월에 65명(국내외 위탁장학생 포함)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하여 천국일꾼을 키우고 있으며 이미 뜻있는 분들이 지명장학금으로, 또는 장학헌금으로 동참하셔서 큰 힘이 되며 격려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9월 신학기를 맞아 계속 천국일꾼들을 키워야겠습니다.

장학생은; 외국유학생, 신학 연구원생, 일반 대학생, 주교 모범생 중·고·대학생등, 지교회 교역자 자녀 약70명

장학헌금: 일반장학금; 시기는 수시로 액수는 임의

지명위탁장학헌금; 시기는 8월 25일까지(매학기 5일전까지) 금액은 등록금 전액 반액등 임의로 가능

주교모범생장학헌금; 중학생 5~10만원
고등학생 10~20만원, 대학생 30만원
신학연구원생; 60만원 정도 전액 또는 반액

개인이나 단체(지회) 또는 2,3인 또는 구역이 합해서 한 장학생을 지명·선정하여 위탁하고 기도하면서 키우면 더욱 뜻있고 힘이 되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뜻 있는 분은 장학회나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하나여전도회, 에스더여전도회, 6지회, 북한선교회, 세계선교회, 8교구, 63구역, 장학회등문, L. A. 지교회 장학금 등등

당 회 장	김 창 인	목사
장학회장	정 석 태	장로
장학위원	김 영 삼	"
	박 채 용	"
	이 영 세	"
	조 인 제	"

8·15 회상

어

느닷 광복의 기쁜 소식이 이 땅 위에 전달된 지 벌써 39년이 지났다. 나는 철도국에서 근무한지 7년만에 돈암동에서 해방을 맞았다. 바로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려고 전근을 자청하고 대기 중 발령나기 2주일 전의 일이니 나이 30이 채 못 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히 깨달을 수 없었다.

일제(日帝) 36년간의 속박에서의 8·15 해방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 38선을 경계로 한 국토의 양단은 민족사의 분단을 초래하였고 분단된 조국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기습적으로 전면 남침해 옴으로서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반민족적 죄과를 저지른 6.25동란은 국토분단이 민족의 비극임을 더욱 절감(切感)케 하였다.

본래 우리 민족 해방이 자력으로 민족의 자각적 성장으로 성취되지 못하고, 제 2차 대전의 종전(終戰)의 선물로 연합군에 의해 중여 받은 것이며 우리가 잘 나서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므로 이 접이 곧 해방 후 지금까지의 혼돈의 시기를 가져온 셈이 된 것이다. 성경의 사건에서 우리 민족의 광복과 견줄 수 있는 사건은 아무래도 출애굽 사건일 것이며 우리 민족이 바라고 바라는 통일의 성업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의 노예 생활의 질곡(柱柙)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생활을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우리 민족도 일제(日帝)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광복을 맞은 지 40년이 되는 1985년에는 제 2의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의 성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꿈을 가져 보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일간 도보(徒步)의 거리를 하나님을 원망하므로 40년이 걸렸음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방종(放縱)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용하지 않는 한 교만하고 잔인한 일본나라를 치신 하나님께서 붉은 미수의 홍해와 야망을 소멸시켜 남북 간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은 제거되지 못하며 남북통일의 제 2의 광복을 보기 힘들 것이다.

조현명 장로

“성경을 배웁시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10여년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 성경연구원을 세워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

고 늘 새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바르게 일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공부는 성도의 신앙 생활의 시작이며 동시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바르고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데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먼저 말씀을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건강을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신 이 때에 한분도 빠짐없이 성경공부에 참여합시다.

1984년 8월 14일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 입학안내

- 수업기간: 1984년 9월 3일(월)~12월 1일(토)
- 수강신청접수: 1984년 6월 25일(월)~9월 1일(토)까지
- 수강신청료: 과목당 1,000원 1인2과목 이상도가합

* 강사 및 교과목소개

아모스
김희보 목사

아모스는 종교적 부패와 타락으로 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를 사는 신자로서의 삶을 본 강의를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로마서
임종만 목사

로마서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체계와 진수가 담겨져 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해지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신앙의 명제들을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조명하여 당신의 신앙생활에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요나 · 나훔 윤영탁 목사

소전지서 가운데서도 요나, 나훔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죄악을 어떻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가를 배우게 되며 또한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구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안목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윤형철 목사

요한복음서에는 지극히 깊고 심오한 진리가 간결한 문체로 담겨져 있다. 그 깊은 사상은 경건한 설교도 충분히 다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심원한 진리를 담고 있다. 강사의 탁월한 지성과 명료한 강의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활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다니엘 목사

귀납적 방법의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 체계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한국 지성인(대학생)의 목자로서 10여년의 경력을 가지고 탁월한 집권과적 용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확고하게 하고 성경공부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할 것이다.

창세기 조영길 목사

지난 학기 창세기 강의에 계속되는 것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들의 생애를 조명해 봄으로서 우리의 삶의 나아가지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새로 등록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지난 학기 강의를 요약한 후 새로운 강의에 입한다.

출애굽기 김수성 목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던 고난으로부터 구출과 종해를 건너고 경야를 거쳐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본 강의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론) 정관호 강도사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현재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말씀을 통한 명쾌한 강의와 함께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김장근 강도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배우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본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오직 위로 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 : 17, 18)

*시간 및 과목

요일	반	반	반	비 고
월	창세기(II) 조영길 목사	요한복음 김장근 강도사		
화	출애굽기 김수성 목사	아모스 김희보 목사 요나·나훔 윤영탁 목사		●시간 : 낮/오전 10시 밤/오후 7시 (창세기II반 은 오후 2시)
수		시편 김창인 목사		
목	요한복음 윤형철 목사	출애굽기 이다니엘 목사		●장소 : 교육관 (201호)
토	로마서(II) 임준만 목사	하나님의 나라 정관호 강도사		

◇ 지평보고 ◇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서

유희섭 전도사
(초등부 부지도)

어린이들을 집중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름성경학교일 것이다. 겨울성경학교도 좋은 기회이지만 교역진이 바뀌어질 때 그 '부서의 형편과 특징을 알지 못한 채 서둘러서 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그런데 경험이 없던 첫 교역자도 이런 어려운 겨울성경학교를 지내고 나면 여름은 훨씬 익숙하게 미리 계획도 세우며 윤택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7월18일~21일) 때에는 3부서(유·초·소년부)가 합부하여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예배를 드린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어린이 강단에 서시는 김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아이

들이 떠들지 않고 잘 들어 주어야 할텐데 하는 염려도 해보았다. 본당 지하에 100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가득히 앉았다. 떠들며 움직이는 것이 본능적인 아이들인데 어찌면 그렇게 조용히 두눈을 반짝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신기하리만치 맛있게 꼬박 꼬박 잘 받아 먹었다. 정말 놀라운 은혜배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주제는 “즐거운 교회생활”로서 주로 실천적인 내용이었다. 학생들 자신이 반성할 수 있게하고, 새로운 결심을 유도하여야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분반 공부에서는 일면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분반 공부의 내용과는 색다른 설교 말씀이 있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또한 김창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P14계속 —

□ 탐방일지 □

나환자 정작촌을 다녀와서

김 오용 전도사
(북한선교회)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5시간 그리고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택시로 약 20분쯤 들어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니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우뚝 솟은 예배당이란 눈에 들어 온다.

택시가 마을에 도착하자 반갑게 뛰어오는 동네 꼬마들과 함께 제일 먼저 인사하는 어느 집사님의 손을 잡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굴도 얼얼이지만 메마르고 오그라진 손마디를 잡는 그 순간부터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사를 받으면서 우리 대원들은 한발 한발 성전을 향하는 동안 좌우 집들을 살펴보니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냄새가 지독한 돼지우리라 닭장 옆

에 판자집 처럼 자리잡은 그들의 집들을 바라보며 성전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 파송하실 때는 주의 크신 섭리가 있는 줄 믿읍니다. 주께서 저 소외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시고저 하는 일들을 하시옵소서...”

저녁집회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모여든 어린이 중고등학생, 장년성도 모두 약 백여명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였다. 강단에 오르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성도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말씀과 더불어 뜨거운 기도와 특별히 메마른 그들의 손으로 박수를 치며, 감사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낮에는 주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예배와 성경공부 찬양의 시간과 특강 그리고 간식 시간을 갖고 서울에서 준비해간 T셔츠를 입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잊을 수 없는 것은 20여명의 중·고등부하생들과의 시간이었다. 저녁 예배 후 다시 한 자리에 둘러 앉은 우리는 저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특히 자신들의 장래의 문제에 대한 갈등을 과연 누가 어느정도 도와줄 것인가? 라는 문제점을 던지면서 결론은 오직 예수그리스도께 장래일을 맡기고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적금」을 넣어 주에 손에잡힐 하나님께서 인물이 되라고 권면하는 순간 모든 학생들의 눈동자에서 새로운 각오의 빛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부모들은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한 인생을 사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내일은 밝고 희망있는 성공자가 되는 꿈을 꾸며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함께 다짐하던 시간들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새벽 낮 저녁 심령부흥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은혜의 분위기는 날로 더 해 갔지만 아쉬운 작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어느 지역 보다도 잊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돌아오는 대원들의 발걸음은 말할수 없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 연약한 교회를 두고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뒤가 돌아 보인다. 함께 수고한 임춘자, 김순희, 반기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향촌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향촌교회를 다녀와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

-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간청으로 유치원 과정인 “할렐루야 어린이동산”을 종교성의 인허를 받아 개원함.
- 오지 촌락 개척지 42개 곳이 모두 동역자(지원자들을 갖게 됨)
-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홍콩, 서울,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필라델피아 등지를 방문하며 선교사역 환자를 위한 협의회를 가짐
- 기도제목 -
- 인도네시아의 원주민 선교사역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길.
- 선교사 내외분의 영·육의 강건함과 따님의 가정을 위하여

애틀라 (이준교 선교사)

- 카이로 한인교회 포트사이드가 정교 및 대림산업 현장예배를 은혜중 인도
- 7월 8일 쇼부라엘 노즈하교회 주일 낮 예배 참석, 설교함
- 7월 15일 쇼부라 엘 샤로키아 교회 주일예배 참석, 복음을 증거함
- 7월 22일 선교지답사 및 성지 순례단일행 방문 카이로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며
- 기도제목 -
- 카이로 한인교회 포트사이드가 정교회 및 애 선교를 위하여

- 선교사 내외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벨기에 (김성완 선교사)

- 화요성경공부 및 성경통신, 주일성경공부 및 구역성경공부가 은혜중 진행.
- 7월 1일(주일) 한국국적의 화물선 “한-패시픽호” 화물선의 선장일행 6명이 주일예배에 참석, 당회장 설교 테이프 4개, 찬송가 테이프 3개 및 성경공부 교재 10권을 기증, 외향선 선교를 시작함.
- 7월 5일, 6일 선교지 성지순례단 내방
- 7월 23~27일 까지 열릴 유럽한인교회 수양회에 참석할 예정
- 기도제목 -
- ‘한-패시픽호’의 선상예배와 25명 승무원 전원의 구원을 위해
- 선교사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교회교육 육성을 위해

서독 (육호기 선교사)

- 5월 2주간 동안 하나우한인교회 심방을 함
- 6월 16일, 30일 비스바덴 한인교회, 뷔츠브룩한인교회 야외예배를 드림.
- 7월 7일~8일 선교지 순방단 내방, 비스바덴, 뷔츠브룩, 하

나우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

- 7월 22일 비스바덴한인교회 성례식을 거행
- 7월 23~27일까지 유럽한인교회 연합 수양회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음. 강사로는 이동원목사(위싱턴 제일침례교회 시무)가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총신대학장 정성구 목사가 마지막날 말씀과 성찬식을 집례함
- 기도제목 -
- 비스바덴, 뷔츠브룩, 하나우세한인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
- 선교사 내외분과 자녀의 건강을 위해

칠레 (유재일 선교사)

- 칠레 한인연합장로교회 새성전 건축예정임
- 6월 6일 교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가짐
- 칠레 한인교회가 1982년 2월 25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이래 장년 100명(현재)의 성도가 회집됨.
- 1981년 7월 23일 칠레 제 1고아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현재 9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예배 및 성경공부를 진행 중이며 사단법인 원아후원회와 상호 협력관계를 맺어 복음을 전파함.

- 현지인 호세바스켓군(28세 청년)을 현지 사역자로 양성
- 기도제목-
- 남미의 영육의 병들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의 후원을 바람
- 선교사 내외분과 가족의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위해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 6월 1일 북한선교를 위한 조찬기도회 모임을 가짐
- 6월 26일 파라과이 교역자 연합회 총회장 후안 웨르난도 목사내방, 원주민 개척교회 설립 문제를 협의함.
- 6월 28일 파라과이 와일즈맨정 기충회에서 설교
- 6월 중의 등록가정은 일곱 가정임
- 기도제목-
- 교회부흥과 원주민 선교사업을 위해
- 정기회복과 교회증축을 위해
- 선교사내외분과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을 위해

일본(유병세 선교사)

- 기도제목-
- 선교사 내외분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 선교사의 의료사업과 병원사업에 주님께서 모든 질병의 의원이 되어주옵시길
- 일본에 있는 많은 한국교민을 위해

인도(엘리아겔간 선교사)

- 인도의 원주민 복음전파 사업을 위해

엘리아 겔간 선교사 내외분과 아들 안드레아스의 건강과 지혜를 충만히 채워주옵시길

라성총현교회

- 기도제목-
- 정상우목사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 라성총현교회 위에 엠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사 질적으로 부흥되어지길

털사총현교회

- 기도제목-
- 털사총현교회가 계속 전도의문이 열리며 부흥되어지길
- 강성진목사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홍콩총현교회

- 이만열선교사의 인도로 그동안 홍콩 총현교회는 주일마다 35명-4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음
- 7월 2일 총현 세계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성지 및 선교지 순방단 일행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접대, 안내함
- 7월 8일(주일) 제 1차 성찬예식을 이만열목사 집례로 거행함
- 홍콩총현교회 주소는 다음과 같음
香港忠觀教會
香港中區安慶台 1-4
安慶大廟11樓(安10字)
Chung Hyeon Presbyterian Church of Hong Kong
101F On Hing Bldg.
1-4 On Hing Terrace,

Central Hong Kong

본부소식

- 6월 20일 상황판 제작용 지도를 구입
- 6월 23일 선교지 사진을 전시함(애굽, 벨기에, 서독, 홍콩총현교회)
- 6월 24일 무디과학연구소 배급 책임자 피터 마고시안 내방, 필름 및 영화를 활용하는 선교에 관한 대담
- 6월 26일 이스라엘 주재 선교사 김주경목사 안수식을 거행
- 6월 27일 김주경목사 이스라엘 주재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림
- 6월 30일 미국장로교회(P. C. A) 대표 30명이 교회 방문함
- 7월 2일 이스라엘 주재 선교사 김주경 목사와, 성지순례 및 선교지 답사차 본 선교회 유국남 목사 순례단과 함께 출국함
- 7월 3일 미주 동부총현장로교회 파송 예정인 박종만목사 부임
- 성도교회 선교위원회 위원 협력선교문제 협의차 내방
- 7월 13일 창동 중앙교회 동남아 선교회장 방문, 선교에 관해 대화
- 홍콩총현교회 담임 오치용 목사 및 가족(백양오 사모 및 은정, 일웅)의 비자 출국수속 4,5일만에 지난 7월 30일 영국 대사관으로 부터 발급 받음
- 오치용 목사의 홍콩 파송예배가 8월 12일(주일) 저녁예배시 있었고, 8월 15-19일간의 선교 100주년 행사를 참석한 8월 21일(화) 오전 11시 40분 타일랜드항공(TG)편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예정

교회소식



□ 교육위원회

○유년·초등·소년 3부 주일학교는 「즐거운 교회생활」이란 주제로 7월18(수)~21일(토)에 본 교회당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다. 강사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이며 첫날 설교는 「예수님의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둘째날 「예수님의 생애」, 셋째날은 「예수님의 수난」, 넷째날은 「예수님의 부활·승천」이었는데 어린학생들의 반응은 대단한 것으로 또한 모든행사에도 3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였다.

○유치부는 「즐거운 교회생활」이란 주제로 7월23~25일에 걸쳐 본교회당에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였는데 정연희 전도사(유치부지도)를 강사로 하였으며 3일간 교육과 훈련을 하였다.

○대학부(지도 윤태곤 강도사)는 제15회 하기수양회를 「더욱 큰 사랑을 사모하자」라는 주제로 7월9~13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한재호 목사(후암교회 시무)를 강사로 하여 128명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과 겸하여 자신의 은사발견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특히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개인 체험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평이 있었다.

○장년부(지도 김희보목사)는 제7회 하기수양회를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자」는 주제로 8월7~8일까지 한영철 목사를 강사로 충현기도원에서 가졌다.

○새가정부는 7월8일 「부부심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특강을 이영덕 교수(서울사대 교수)를모시고 115명이 참석하여 강의를 들었다.

또한 8월26일 이경우 박사(이화여대, 유아교육)를 모시고 「기독교 유아 교육방법」이란 제목으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9월27~29일 제5회 새가정부 가정세미나 개최될 예정으로 손봉호 박사, 옥한음 목사, 이태웅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실시할 예정이다.

○직장전도교육부는 8월12일 오전10:30에 주일예배를 마치고 「신앙간증회」를 가졌다. 이명희 선생 외 학생 3명이 간증하는 순서를 가짐.

○중등부(지도 이원길 목사)는 7월30~8월2일까지 「모든 일에

유익한 성경」이란 주제로 충현기도원에서 정삼지 목사(후암교회 시무)를 강사로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한 분반 토의시간은 매우 진지하였다 한다 마지막날 부흥회 때 학생들이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가져 많은 눈물과 간증의 시간이 있었다.

□ 구역권찰회

구역권찰회는 1984년도 전도자 표창을 8월26일 주일 4부 대에 배시에 할 계획이다. 대상은 '84년 1월~7월말까지 2인이상 전도하여 대예배에 출석케한 성도이며 시상방법은 개인상과 구역상이 있다.

○제3차 구역지도자교육 8월26일 4부예배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장소는 본당 대예배실, 대상은 지역장, 부지역장, 권찰전원으로서 강사는 장정일 목사이며 강의내용은 축호전도의 실제와 대신자전도에 관해서이다.

○제1차 구역축호방문전도가 8월31일(금) 오전 10시 부터 1부예배는 김창인 목사의 설교와 2부 「축호전도의 실제」라는 제목의 강의를 장정일 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대상은 전교인이다.

○성전전축과 교구부흥을 위한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7월2~9월9일까지 1교구에서 부터 10교구가 실시.

□ 전도위원회

○복지기관 복음화를 위한 좌담회

‘복지기관 복음화를 위한 좌담회’가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1984년 7월19일(목) 오후 7시 영동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기관 종사자 7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예배는 김창인 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2부 좌담회는 장정일 목사의 사회로 복지기관의 애로사항과 교회의 지원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 병원전도 전략세미나○

‘병원전도 전략세미나’가 전도위원회 도시특별전도부 주관으로 1984년 9월20일(목) 오후6:30에 선교관 403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효율적인 병원 전도전략”이란 주제강연이 있는 후 참석자들의 질의토의가 있다.

○ 어민초청전도집회○

금년들어 두번째로 ‘어민초청전도집회’가 9월중에 전도위원회 농어촌전도부 주관으로 인천수협공판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설교·간증·찬양·위로등의 순서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교회 한나여전도회, 에스더여전도회는 8월 9~11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연합으로 수양회를 가졌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주제로 열린 이번 수양회는 배순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낮공부와 저녁부흥회를 가졌으며 특별순서로는 성경암송대회, 성경퀴즈대회, 찬송경연대회를 가졌다고 한다.

○북한선교원이 주최하는 8.15해방 구국대성회가 8월20~24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김창인 목사, 이천석 목사, 이호문 목사, 조준상 목사, 현신에 권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릴 예정이다.

○ 의료전도○

○제 1 남전도회(회장: 정석태 장로)는 7월15일(주일)에 지교회

인 금현교회(장병기 전도사 직무)에 의료전도단의 협조를 얻어 의료전도를 실시하였는데 진료과목은 치과 49명, 한방 51명, 내과 58명, 피부과 47명, 이비인후과 39명, 소아과 4명, 외과 43명, 산부인과 10명으로 총 301 명을 진료하였다.

○ 농어촌 봉사대○

대학부 농어촌 봉사대원들이 2차에 걸쳐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1차는 7월30~8월 4일 부현교회(강원도 인제군소재)에 김성운 전도사(대학부 부지도)가 인솔하여 11명 남녀 학생들이 성경학교를 실시하고 노방전도를 하였고 2차는 8월 6~11일 거아도교회(충남 서산 남면)에 윤태곤 강도사(대학부 지도)가 인솔한 남학생과 여학생 14명으로 구성된 팀이 4일간 성경학교를 실시하고 축호 전도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땀과 정성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의 열매로 결실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 북한선교원 하기훈련

북한선교원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훈련원에서 7월23~28일까지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 새벽 정선역에 도착하여 훈련원까지 13km를 행군하며 훈련에 임하였으며 저녁부흥회와 전도훈련 선교훈련, 도강훈련, 강연기도회를 통한 훈련으로 은혜로운 기간을 가졌으며 김창인 목사를 비롯한 조준상 목사, 김오용 전도사, 유창무 전도사가 강사로 수고하였다.



●오치용 목사 가족 사모 백 양오
장녀 오 은정
장남 오 일웅

◎ 오치용 목사 홍콩충현교회 파송

8월12일 주일저녁예배시에 본교회 충현세계선교회 지도로 수고하시던 오치용 목사의 홍콩충현 교회 파송예배가 있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실성종 목사의 설교가 있는 후 당회장 목사가 선교사 파송장을 수여하고 홍콩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공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곳이 홍콩인고로 전방에 싸우러 가는 군인을 보내는 심정으로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오치용 목사는 오는 8월21일 오전11:40 홍콩을 향해 출국할 예정이다.

6 월의교우동정

•새교우

1교구

역삼 6	정옥화	논현 11	정애자
논현 10	추교석	논현 10	정영목
논현 10	조은숙	역삼 3	김춘자
양재 1	송삼규	쌍용 1	김연희
영동 5	김영숙	역삼 7	최윤희
경북 1	나영화	역삼 9	박노택
논현 14	조항심	대치 2	유희자
대치 2	양성자	개포 1-1	이은미
개포 3	황영숙	역삼 2	김민준
역삼 5	박추자	역삼 7	김순례
역삼 5	신백용	역삼 6	박부순
논현 6	장순례	역삼 3	강관순
개포 1-1	황인옥	개포 5	박상철
개포 5	이혜자	개포 1-1	왕소춘
논현 6	김은숙	은마 3	임수진
은마 3	정용숙	삼성 5	김도선
역삼 5	이양수	논현 15	김요섭
논현 9	이순자	역삼 7	정중환
영동 3	정세라	역삼 5	홍순형
역삼 6	이태성	역삼 7	심영식
은마 1	이재수	삼성 4	기중선
삼성 4	이경휘	개포 5	이경화
도곡 3	박춘자	도곡 3	엄진이
도곡 3	정의열	삼성 4	염동종
살현 4	김옥희	삼성 6	정숙인
살현 13	한상은	삼성 6	양복희
논현 14	백옥순	개포 1-1	채선자
논현 8	박병화	논현 15	진대섭
동신	한길동		

2교구

압구정 4	박태선	반포 6	백천옥
서초 4	남승락	서초 11	김창동
반포 18	김정열	영곡 2	박우정
신사 3	송태순	서초 7	이우명
성남 5	이용현	성남 3	양태석
성남 3	서지윤	성남 4	오침자

3교구

봉전 6	유재옥	봉전 6	손중섭
봉전 6	주동식	봉전 6	손영섭
봉전 4	유원종	봉전 6	황관동
신대방 2	김영은	과전 1	변경숙
상도 5	김창희	과파 2	황경애
사당	송석윤	상도	홍종희
봉전 6	김순례	봉전 1	김수연
봉전 7	나정순		

4교구

당산 1	황보해경	발산	박선애
신월 1	오말녀	부전 1	하귀순
구로 2	김은숙	시흥 1	이영희
도원 2	이수연	신길	박영숙
부전 1	조병례	화곡 1	전성희
당산 1	권영자	당산 1	이영일
고척	김영숙	광명 3	유계숙

5교구

응암 1	박갑자	구산	김훈정
남가좌 1	이등숙		

6교구

장위 2	강복순	장위 1-3	정남규
안암 5	김행림	도봉 1	이순례
안암 5	이경숙		

7교구

용두 1	최경남	구리 2	윤남용
면목 7	이철주	구리 2	차진수
장안 1	김영옥	답십리 2	우옥이
답십리 2	강순복	답십리 2	김명희
청진 1	조영주	송인 1	김순예
중신 1	김희복	전농 1	박상천

8교구

우성 1	김미숙	잠실 1	김현순
반포 3	강만원	잠미 1	장정희
가락 4	김창영	잠실 2-1	입상택
잠 3-3	조남순	가락 1	오순영
잠실 1-2	한익수	잠실 2-1	이명자
삼익 3	김영주	삼익 3	이명주
풍납 3	김재숙	진주 2	안화숙
잠 4-1	강정희	잠실 4-1	김경화
우성 2	최영규	전호 2	송영복
전호 2	박귀남	전호 2	양옥이
전호 3	신재갑	광주	유창무
가락 1	이영숙	잠미 1	최영숙
성내 4	김영철	하일 1	오경애
잠 3-3	최명순		

9교구

중곡 4	장정남	응봉 2	김봉중
행당 3	박종분	응답 3	송일현
홍익 1	송의석	중곡 5	박기영
응답 3	김남순	모진	변동진
성수 6	김정자	성수 2	정상준
홍익 1	고동현	성수 6	김영미
자양 4	김순자	화왕 1	김효길
송정	황익순	구의 2	고순태
구의 1	한옥순	자양 4	곽연옥

자양 1	강화순	응답 2	김미영
구의 4	배문준	성수 1	천명임
자양 4	이상현	구의	신명준
송정	이홍범		

10교구

주교 1	김용례	쌍림 7	김혜원
신당 5-3	이순심	신당 3-3	백은주
신당 4-2	김균예	신당 6-2	이재연
장충 2-3	장만호	신당 2-2	김충효
신보	오복환	신당 1-2	최전자
신당 1-6	이의숙	장충 2-5	김승연
장충 2-5	박정애	쌍림 7	박귀녀
신당 1-3	홍종욱		

•결혼

- 박동혁군(박용갑씨 아들)과 우경이양(문명도씨 딸) 6월 2일
- 박수기군(허미주권사 아들)과 이향선양 6월 2일
- 김태호군(성내구역 김동석씨 김분선 권사 아들)과 이혜정양(1부 성가대원) 6월 2일
- 조경현군(시흥구역 청년부회원)과 김미영양 6월 9일
- 이화진양(창진구역 이진수집사 딸) 6월 12일
- 조중환군(목동구역)과 최하자양(박영덕씨 딸) 6월 19일
- 김형주군(김장진씨 권윤행집사 아들)과 김명소양 6월 21일
- 김창환군과 이은혜양(이원홍씨 유영희 권사 딸) 6월 23일
- 박상돈군과 신계은양(한양대원) 6월 23일
- 이방훈군과 박순정양(박윤민씨 고남권권사 딸) 6월 26일
- 조영팔군과 이성은양(이장식씨 김기덕집사 딸 유년부부지도) 6월 26일
- 김재표(제기구역) 김동숙양(김세홍집사 김남진권사 딸) 6월 30일

•별세

- 정신덕(가락구역) 6월 3일
- 박영순권사(이중 집사 외모) 6월 3일
- 이정애집사(김예권집사 부인) 6월 6일
- 박윤기집사(정순자집사 부인) 6월 19일
- 정성화권사(신수옥권사 사모) 6월 21일
- 백옥례(필동구역) 6월 25일
- 성찬영집사(하계구역) 6월 26일

9 월의 행사

□ 당 회

8월31일 / 정기당회

□ 제직회

2일 / 제직회

□ 기획조정실

16일 / 월간충현 발행

□ 구역권찰회

2일 / 구역총동원 전도주일

□ 예배위원회

2일 / 설립기념예배

30일 /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

□ 교육위원회

(성경연구원)

2일 / 전교인 성경공부,

교사재훈련반 개강



무더운 여름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식한다. 여름 계절학교를 통해 교사는 사랑의 봉사를, 학생은 믿음의 훈련을 다져가고 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일꾼들을 키우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예년처럼 7·8월호를 합병해서 발행했다. 잘된 글

이 못 되더라도 필자의 정성과 편집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읽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아낌없는 질책을 기대한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다음 호 부터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로운 '월간충현'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해 본다.

표지의 글

이번 집회기간에
어린이들에게
김창인 목사가
예수님의 일생에 관하여
설교했는데
비유에 맞는
표현과 동작은
어린 아이들을 매료시켰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편집위원

장 정 일 조 현 명
김 수 성 이 형 수

월간 충현

1984년 7·8월호

제12권 6호 (통권122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4년 8월 16일 인쇄

1984년 8월 19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최 석 주

주 간 / 이 성 근

홍보출판부장 / 김 광 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665-1

전화 / 562-4181~5

화보뉴스

① 정성에서 북한선교대원 훈련 중, 저녁 집회에 메시지를 전하시는 북한선교원 총재 김정인 목사



② 홍콩 중현교회의 첫 성례식



③ 북한선교대원과 조준상 목사



④ 복지기관 복음화를 위한 좌담회



⑤ 성지 순례단 기념촬영

◇ 포토에세이 ◇

만일 하나님께서 한줌의 흙과 공기로
이슬과 비, 태양과 그림자로서
못생긴 씨 하나에서
저 놀랍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으시다면

당신과 같은 영혼에서
성경과 믿음, 기도로써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해 내실 것인가?

만일 당신이 그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